

Chapter 1. 호세아 4.

❖ 본문: 호세아 5 장 1 절 -15 절

➤ 들어가기

호세아서 5 장은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린 체, 교만함에 빠져서 우상숭배를 행하며 범죄하던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이를 본받던 유다를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영적 교만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좁 같이’, ‘씩이는 것 같이’, ‘사자 같이’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에도 임할 것이라 선언하시며,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영적 교만을 책망하신 하나님 (1-7 절)

1)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시금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1-2 절)

- 1 절 =>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북이스라엘의 11 지파)’, ‘왕족들(왕의 가문+귀족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
- 이때 하나님은 ‘들으라’ -> ‘깨달으라’ -> ‘기울이라’는 단어들을 점진적으로 강조하여 사용하심으로써, 앞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지도자들이 더욱 더 신중하고 주의 깊게 듣고, 세심하게 반응할 것을 가르치셨음!
- 이와 함께 하나님은 특별히 당시 지도자들은 ‘미스바에 놓은 울무’, ‘다불 산 위에 펼친 그물’, ‘살육죄를 행한 패역자’로 비유하시며 책망하셨음!
 - 참고, ‘미스바’는 요단 동편 길르앗 라못을 가리키고, ‘다불 산’은 요단 서편 에스드라엘론 평원의 둥근 산을 가리키는데, 이곳은 다 울무와 그물을 이용해 새를 잡던 사냥터였음.
 - 따라서 하나님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새 사냥꾼들처럼 울무와 그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행하며, 앗수르를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하신 것!
 - 또한 2 절에서 저들은 ‘살육죄를 행한 패역자’로 비유하신 것은, 지금껏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위해) 드렸던 모든 희생제물을 의미한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와 예배자의 마음 없이 드린 모든 희생은 그저 살육한 죄밖에 안됨을 의미하신 것!**

2)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의 죄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4 절)

-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
 - => 따라서 에브라임의 죄는 항상 북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표하고 있음!
 - => 특별히 하나님은 저들의 죄가 숨겨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음행하였고, 더러워졌다**’고 지적! => 그런데 여기서 ‘이제’ 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을 의미!!
- 곧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숭배를 행하며 범죄하고 있다는 것!!
 - => 그러므로 저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것이라고 4 절에서 책망!!

=> 곧 단순히 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돌아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들은 스스로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

3)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교만함을 책망하시며, 아무리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더라도 결코 만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5-6 절)

- 5 절 주목 =>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 원어적 의미는 ‘이스라엘의 얼굴에 있는 교만이 곧 저들의 죄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의미!
 - 참고로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 세때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던 중!!
 - > 이때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보다는 도리어 자신들의 힘과 부귀영화를 자랑하며 헛된 교만에 빠져 우상숭배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무시함!
 - >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교만함들이 다 저들의 얼굴에 드러나고, 그 얼굴이 결국 자신들의 죄를 증거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
- 그러므로 6 절에서 하나님은 저들이 아무리 많은 양과 소를 끌고 와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결코 만나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심!
 - 곧 걸만 번지름한 형식적인 제사, 순종이 없는 제물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자!

4)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렸음을 지적하시며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7 절)

-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영적 배신을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은 것’이라 표현!!
 - > 이것은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 충분히 이해했음.
- 그 결과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킬 것’이라 선포하심!
 - ‘새 달’의 원어 ‘호데쉬’는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는 절기, ‘New Moon Festivals’을 의미!
 - 곧 형식적이고 불순종한 자세로 드린 희생 제사가 도리어 저들의 기업을 파멸시키는 근거가 됨을 깨닫게 하신 것!

2.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8-15 절)

1) 하나님은 기브아에서 _____을 라마에서 _____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 절)

- 뿔나팔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고, 나팔은 은이나 동 같은 금속으로 만든 나팔.
 - 그런데 이런 나팔을 부는 것은 적의 침입과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행위!!
 -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적들의 침공이 있을 것을 미리 선포케 하신 것!
- 그런데 이때 8 절 마지막을 보면, ‘벤아웬’에서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라고 외치게 하심!
 - 이것은 곧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적이 베냐민(유다)도 침략할 것이라 경고하신 것!!

➤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 바로 전쟁의 위험을 알리는 장소!! => 곧 ‘기브아’, ‘라마’, ‘벤아웬’

이곳은 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경 지대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

- 그럼 왜 하나님은 이방의 침략을 남북의 국경지역, 그것도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알리도록 하셨을까?

①. 우선 참고로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인가?

- 예루살렘은 원래 베냐민 지파의 성읍(수 18:28) // 유다는 예루살렘을 남쪽(수 15:8).
- 그런데 사사 시대까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함 (삿 1:21)
- 그로 인해서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수 차례 공격 후 정복하게 됨!
 곧 ‘갈렙 - 갈렙의 조카 웃니엣(삿 1:8) => 다윗이 완전 정복 후 예루살렘 성을 세움!!
 (역대상 11:4)
- 그 후 예루살렘 지역은 남북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공존하면서 두 지파의 경계가 됨.

②.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8 절의 베냐민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곧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보아야 한다는 것!!

- => 곧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정사실화 하시면서, 하루 속히 남유다가 이것을 보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셨다는 것!

2)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9 절)

- 9 절: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 ‘벌하는’의 히/원 ‘토케하’는 어떤 결정적인 ‘결판’ 또는 ‘청산’의 의미!
 - 곧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심으로써 저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청산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

3) 하나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동시에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10-11 절)

- 남유다 => ‘경계표를 옮기는 자’
 - ‘경계표’는 땅의 경계를 표시한 것으로, 모세는 율법으로 이 경계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했고(신 19:14), 만약 이 경계표를 옮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신 27:17)이라 기록!

- 참고로 ‘경계표를 옮기는 자’에 대한 해석

- ①. 백성들의 땅을 탈취한 죄 (Kimchi, Cheyne),
- ②.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을 의미 (simson)
- ③. 경계표는 율법을 상징한 말로 해석할 경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음을 의미 (Rashi, Hengstenberg, Aben Ezra)

- 북이스라엘 => ‘사람의 명령을 따르기를 좋아함’

- ①. 단과 뻔엘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 우상숭배를 강요한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명령을 따른 죄 (J.Given, L.Wood, M.Henry, P.Butler).
- ②.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들을 따르고,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따른 죄 (Rashi, etc)
- ③.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저들의 명령을 따른 죄 (Keil)

- 4)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향해서는 ‘좁 같으며’, ‘사자 같이’, 남유다를 향해서는 ‘썩이는 것 같이’, ‘젊은 사자 같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12-14 절)
- '좁'과 '썩이는 것'은 둘 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처음에는 조용하게 진행되지만, 결과는 확실하고도 강력하게 나타남!
 - ‘사자’의 히/원 '쇄할'은 사자의 사나운 울음소리를 연상하며 부르는 말이고, ‘젊은 사자’의 히/원 ‘케피르’는 갈기가 있는 숫사자의 웅장한 모습을 연상하며 부르는 말!
=> 그런데 이 둘은 다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움켜갈 것이고, 구해낼 자가 없을 것이라 선언!!
 - 특별히 13 절에서 하나님은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병을 깨닫고 알았지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앗수르 왕을 찾고 도움을 청함하고 있다고 지적하신 후, 결국 저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 없음을 지적하셨음!!
- 5)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심판이 임하는 동안 저들을 떠나 계실 것이고, 저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 절)
- 이스라엘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 곳으로 돌아가 기다리실 것!’
 - 곧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뉘우칠 때까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저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잠시 멈추시고 기다리실 것이란 뜻.
 - 결국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총을 다시 입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회개하며, 그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길뿐이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묵상하게 된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나눔